

친애하는 전국의 상하수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상하수도 분야는 해외 상하수도 시장상황의 변화와 해외 우수기업의 국내진입, 수도사업의 구조개편 논의, 상하수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 향상 등 여러 가지 현안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오랜 조사와 치밀한 준비 끝에 지난해 7월 검인증사업을 본격 시행하였고, 하수도 시설기준 개정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관련 각종 연구·조사, 기술지원, 교육, 홍보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회원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더욱 유용한 정보와 혜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2005 WATER KOREA 행사는 전국의 상하수도 종사자들에게 보다 폭 넓은 정보와 지식 교류의 장이 되었을 것으로 보며, 상하수도 기업체에게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구매자에게 효과적으로 전시마케팅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는 물과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 드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이러한 결실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를 '맑은 물 공급기반 강화 및 상하수도인의 위상 제고의 해'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3개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여 회원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협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난 7월부터 본격 추진된 상하수도용 기자재 검인증사업은 올해 100건에 이르는 협회 단체표준 인증을 목표로 더욱 활성화 시키며, 추가소독능 및 기타여과방식 인증사업도 그 대상을 확대·실시하여 보다 깨끗한 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협회 회원의 위상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11월 1일을 상하수도의 날로 제정하는 동시에, WATER KOREA 행사도 그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여 '테마가 있는 전문전시회와 전국 상하수도인의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하수도인의 직무향상을 위해서 협회가 추진하는 상하수도 부문 연구·조사, 교육, 홍보사업 등을 다양화하고 내실화시켜 회원들의 현업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노력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전국 상하수도 가족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회원에게 사랑받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새아침을 열면서
한국상하수도협회 임직원 일동